



미국-이란 전쟁 쇼멘트

호르무즈 해협 트럼프를 봐야

투자전략팀 퀀트 안현국 hg.ahn@hanwha.com 3772-764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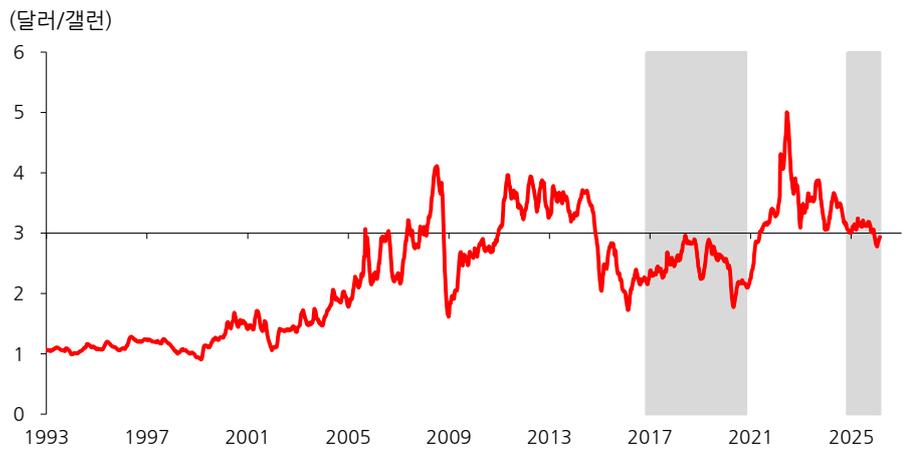
미국-이란 전쟁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국지전/소모전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.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은 공식 봉쇄는 아니나 일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보인다. OPEC+가 이미 증산 카드를 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현재 8~10% 급등 중이다. 사태 장기화 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다.

작년 4월 관세 전쟁 당시 트럼프는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커지자 협상 유예, 관세율 조정으로 한 발짝 후퇴했다. 국제 금리 급등으로 채권시장이 발작했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다. 이번 전쟁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.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협상 등 불확실성 해소 지점이라고 생각한다.

사태가 장기화되면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실물 경제 압박이 강해질 것이다. 트럼프는 갤런당 3달러 이하의 휘발유를 자랑해 온 상황에서 주식보다 변동성이 높은 유가 급등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. 2기 집권 후 지지율은 약 40%로 이미 최저 수준이다.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 트럼프가 먼저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.

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최대 낙폭은 작년 관세 때보다 작을 것이다. 트럼프 1·2기 S&P500 전체 거래일의 91.5%는 직전 1년 고점 대비 -10% 이내에서 머물렀다. 작년 관세 우려가 극에 달했던 4월은 평균적으로 -12.7% 수준에서 등락했고 KOSPI는 같은 기간 -14.5% 내외에서 움직였다. 이번 3월은 그보다 얇은, 고점 대비 -5% 내외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. 관세는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, 유가는 트럼프만 쥐고 있지 않다. 관세 충격보다 얇고, 회복 속도는 그 때보다 느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.

[그림1] 미국 일반 등급 가솔린 가격 추이



주: 회색 음영은 트럼프 1·2기, 기간은 선거가 포함된 11월부터 표시 / 자료: FRED, 한화투자증권

[Compliance Notice]

(공표일: 2026년 3월 3일)

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,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(안현국)
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